

## 한국과 일본의 패션 그룹간 패션 현상 비교

박길순·김서연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The Comparison of Fashion Phenomena to Fashion Groups in Korea and Japan

Kil-Soon Park and Seo-Youn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1. 10. 19 접수 : 2002. 1. 15 채택)

#### Abstract

Applying H. Gans' taste culture theory to the contemporary fashion phenomena, this study had an object to classify the fashion phenomena in Korea and Japan from 1995 to 1999, and look into and compare them.

First of all, the characters of each fashion group of the two countries show that the details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re grafted into the most popular style in each season in Korean high fashion and oriental look used the formative method for Japanese traditional costume and Tokyo street style are reflected in the Japanese high fashion.

Mass fashion in Korea equally comes under the influence of European high fashion, Korean street fashion, and Japanese mass fashion, And mass fashion in Japan reflects European high fashion and Japanese street fashion.

The Street fashion in Korea was affected by Korean entertainers' fashion, 'Tongdaemun market fashion' in Seoul, and Japanese street fashion. And street fashion in Japan is also affected by the pursuit of powerful personality, the absolute imitation if Japanese entertainers' fashion, and 'Tongdaemun market fashion'. All of two countries exercise considerable influence over mass fashion each other.

*Key words: taste culture, high fashion, mass fashion, street fashion.*

#### I. 서론

근대화 물결 속에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서구식 문화의 유입과 이러한 현상이 가시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서양복으로의 변환은 계급사회의 붕괴와 기술적 발달에 힘입어 전 세계 패션현상의 동일화라는 대명제로 요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대사회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유럽의 몇몇 나라에 의해 좌우되는 동일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달된 교통과 통신의 영향으

로 세계 여러 나라의 패션이 함께 부각되고 있고, 동일한 지역에서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취향과 계층적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패션 연구들이 지역적으로는 유럽과 한국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내용적으로는 하이패션과 스트리트패션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패션현상의 분석을 위해서는 유럽이외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션현상을 함께 비교 분석할 뿐 아니라 한 나라안에서도 소수의 창

작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되는 하이패션과, 한 사회의 유행을 좌우하는 대중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매스패션, 그리고 디자이너나 의류업체가 예상하여 제작, 보급한 것은 아니지만 거리에서 생겨나 유행하게 된 스트리트패션의 현상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제까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현대 일본의 패션산업은 그들의 경제력, 대중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하나에 모리(Hanae Mori),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등과 같은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1970년대부터 파리에 진출하여 1980년대를 재패니즈룩(japanese look)이라 불리는 빅룩(big look)의 시대로 만드는데 공헌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소프트 아방가르드룩(soft avant-garde look)이라 불리는 일본풍의 전위적인 스타일로 세계 패션계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스패션과 스트리트패션도 그들의 영역을 자국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로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김서연·박길순(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85.9%가 '우리나라에 일본의 패션이 유행하고 있으며', 73.9%가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패션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다.<sup>1)</sup> 이와 같이 세계와 한국에 미치는 일본 패션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본 패션 현상의 특징을 연구하고 이것을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의 패션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 Gans의 취향문화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패션현상을 하이패션·매스패션·스트리트패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을 각각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기간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접촉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빈번한 문화 교류가 행해지게 된 1990년대 후반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는 도쿄컬렉션과 SFAA 컬렉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이패션, 내셔널 브랜드의 판매동향을 중심으로 한 매스패션, 전문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패션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현대 패션의 특성

G. Simmel은 패션이 개인을 차별화 시키면서 경쟁과 상호의식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공유된 즐거움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망을 고취시킨다고 하였다.<sup>2)</sup> 이를 통해 그가 강조한 것은 패션이 차별화시켜 주는 개인의 특성이란 개인이 속한 계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J. Finkelstein은 패션이 욕망의 조작, 이에 따른 즐거움, 그리고 상상력의 유희라고 하였으며, 지금의 소비 사회에서 가장 명백한 변화는 취향의 차별화라고 하였다.<sup>3)</sup>

한편, 김민자는 현대의 패션은 사회적 문화적 사건의 반영이 아니라, 패션 의식이 있는 멋쟁이(dude), 취향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는 취향은 변화할 뿐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르며 시대, 민족,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대나 민족에 있어 공유하는 취향 즉, 일종의 객관적 정신이 지배하며 그러한 정신의 발전에는 지속적인 특징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션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시대적 보편적 취향 아래 연속적인 고리를 가지며, 각각의 개인도 자신에게 일관된 보편적 취향으로 그 시대에 유행하는 다양한 패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 시대의 보편적인 정신은 개인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취향의 집합적 정신체가 또한 시대적 취향을 이룬다는 것이다.<sup>4)</sup>

H. G. Blumer 역시 패션 메카니즘을 대중의 취향이라고 규명하였다. 그는 개개인의 방향을 정해주고 행동을 조직화하고 경험을 정형화하는 주관적 메카

1) 김서연, 박길순, "한국 현대복식에 나타난 일본 패션의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1998년)-", 복식문화연구, 7(1), 1999, pp.27-37.

2) J. Finkelstein, 『After a Fashion』, Melbourne Univirsty Press, 1996, p.39.

3) G. Simmel, "Fashion", *International Quarterly*, October, 1904, pp.130-155.

4) 김민자, "20세기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 복식, Vol. 38, 1998, pp.369-392.

니즘이 취향<sup>5)</sup>이라는 개념을 패션에 적용하여, 새로운 스타일들이 소비자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하지만 그 중에서 현존하는 대중의 취향을 가장 가깝게 나타내는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때 대중들이 지니는 집합적 취향(collective taste)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형성되는 경험의 산물로서 초기에는 모호한 상태이지만 점차 세련되고 안정된 상태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Blumer는 패션이란 계급의 차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취향을 표현하려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다.<sup>6)</sup>

이상에서 고찰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20세기의 패션현상은 개인이나 문화의 취향을 표현하는 메카니즘이라 설명될 수 있다. 즉, 개인들의 취향이 보편적인 시대적 취향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여 형성된 대중의 취향이 그 시대의 유행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패션현상은 새로운 취향을 표현하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것의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그들이 속한 문화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취향에 대한 메카니즘이라는 현대 패션의 개념은 현대 문화가 취향문화라는 H. Gans의 개념과 유사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framework으로 H. Gans의 취향문화론을 이용하고자 한다.

## 2. H. Gans의 취향문화론

현대의 문화는 예전처럼 소수의 상류계층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 H. Gans에 의하면 단지 그들 사이에 취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는 여러 취향문화들은 여러 가치와 그것들을 표현하는 문화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문화형태란 음악, 미술, 디자인, 문학, 뉴스 등과 이들을 표현하는 매체, 심미적 가치와 기능을 표현하는 가구, 의상, 자동차 등을 말한다. 취향문화는 또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철학 또는 민간지식까지도 포괄하는데, 이들 여러 학문의 가치나

형태, 그것들을 상업적으로 대중 보급하는 매체 등도 포함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정치적인 가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암시적으로 내포하고 있거나 정치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이 H. Gans가 정의한 취향문화의 개념은 모든 형태의 문화를 일컫는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7)</sup>

한편, Warner의 사회계층 이론을 도입하여 만든 문화분석의 카테고리인 취향문화론은 취향문화를 상급문화(highbrow culture), 중급문화(middlebrow culture), 하급문화(lowbrow culture)로 구분하고 있지만, 어느 문화가 바람직하다거나 어느 문화에 미학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도식이다.

먼저, 상급문화는 이전의 학자들이 고급문화라고 부르던 것으로서, 다른 취향문화와는 달리 문화의 창조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문화의 사용자들은 창조자의 수준과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다른 문화에 비해 그 변화의 정도가 빨라, 20세기만 보더라도 이들의 예술이 표현주의, 인상주의, 추상주의, 관념주의 등 여러 형태로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므로 상급문화란 극소수의 제한된 귀족적, 고전적 취향을 가진 자들로서 권위를 중시하며 한 사회의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들의 취향문화라 할 수 있다.

중급문화는 보통 다른 학자들이 대중문화로 분류하는 문화로서,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취향문화이다. 중급문화의 사용자들은 주로 독자적인 세련성을 지닌 문화를 창조하기보다는 상급문화의 내용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 와서는 문화내용물을 변화시켜서라도 더 많은 수용자를 확보하려는 여러 문화산업 기관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대의 대중매체 수용자는 대부분 이 문화계층의 사람들이어서, 대중매체가 이들을 주요 수용대상으로 삼고 내용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급문화란 중간 정도의 생활수준

5) H. G. Blumer, "Fashion",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Social Science*, Vol. 5, 1978, pp.341-345.

6)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5), pp.142-143.

7) H. Gans,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N.Y.:Basic Books Inc., 1974), pp.28-35.

과 여유 있는 경제력을 가지며 대중매체의 주된 이용자가 되는 사람들의 취향문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하급문화는 상급문화와 중급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취향문화이다. 하급문화의 수용자들은 그 시대의 사회문제를 다룬 추상적인 사상의 내용물에는 흥미가 없기 때문에 상급문화나 중급문화를 차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또한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을 우상시하고 그들을 통한 대리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많으며, 주로 젊은이들에 의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subculture)를 형성하기도 한다. 즉, H. Gans가 정의한 하급문화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현실적인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뿐만 아니라 주로 젊은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하위문화의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겠다.<sup>8)</sup>

이러한 취향문화와 문화 수용자간의 관계는 평화적일 수도 있고, 갈등적일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문화 수용자가 여러 종류의 취향문화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하나의 취향문화가 여러 종류의 취향문화 수용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문화를 취향문화로 선택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두 문화가 서로 인접해 있지 않고 아주 차이가 많을 수도 있어서 상급의 취향문화와 하급의 취향문화를 함께 선택, 수용하기도 한다.<sup>9)</sup>

따라서 표면적으로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개인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모든 문화가 혼합된 것 같지만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하위개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대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취향문화의 개념은 이 시대의 패션 현상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진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취향문화로 정의할 수 있는 현대의 패션현상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국과 일본의 패션현상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Ⅲ. 한국의 패션그룹별 패션 현상

#### 1. 사회적 배경

1990년대 후반은 한국 사회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이다. 사회 곳곳에서 불의의 사고가 잇달았는가 하면,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의 증가가 초래되어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기반부터 위협하기도 하였다. 섬유·의류업체 역시 커다란 타격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나산」, 「논노」와 같은 건실한 의류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에 20대 신세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과 달리 1990년대 후반에는 10대 후반, 심지어는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상당부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IMF 체제 하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기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또한 비공식적 전과에 의존하던 일본 대중문화의 향유정도가 심화되어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이 사회 곳곳에 두드러져 나타나게 되었고, 1998년에는 몇몇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유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주로 많은 영향을 미친 문화요소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 대중음악, 패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의 한국 패션현상은 다음과 같다.

#### 2. 하이 패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SFAA 컬렉션은 1990년대 전반의 미니멀리즘을 보다 로맨틱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글래머룩과 밀러터리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이 두드러져 나타났다.

먼저, 1995년에는 복고풍의 글래머룩과 물리타룩, 스포티브룩, 스몰걸룩, 오리엔탈룩이 등장하여 로맨틱시즘이 지배적이었으며,<sup>10)</sup>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글래머룩 외에도 레이스와 망사로 장식된 소녀의 이

8) H. Gans, *ibid.*, pp.99-136.

9) H. Gans, *ibid.*, pp.157-165.

10) "95 S/S SFAA Seoul Collection", 「Elle 한국판」, 1995년 1월



〈그림 1〉 롤리타룩  
(’95 S/S, Korea-high fashion,  
「한국판 Elle」, 1995년 1월)



〈그림 2〉 에스닉 모티프를 다양한 응용  
(’99 F/W, Korea-high fashion,  
「한국판 Elle」, 1999년 6월)

미지에 섹시함이 더해진 롤리타룩이 두드러져 나타났(그림 1 참조). 1996년에는 1995년에 주춤하였던 미니멀리즘 경향이 다시 등장하여 몸에 꼭 맞는 모스룩과 재킷의 케네디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으며, 심플한 라인과 무릎길이의 길어진 스커트가 전체적으로 장식의 사라지고 라인이 보다 심플해지고 스커트가 무릎길이의 타이트 스타일로 변화하였다.<sup>11)</sup> 1997년에는 미니멀리즘의 경향이 보다 심화되어 나타났다. 스타일에 상관없이 등장하는 배꼽이 드러나는 타이니 탑과 슬립 팬츠가 특징적인 아이템이었고,<sup>12)</sup> 이 해에 이루어진 홍콩 반환의 영향으로 차이니즈룩이 많았다. 1998년에도 오리엔탈리즘이 큰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었으며,<sup>13)</sup> 가을/겨울 시즌에는 일본풍의 소프트 아방가르드룩이 많이 등장하였다.<sup>14)</sup> 1999년에는 이전의 몇 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나타났던 스포티즘과, 세기말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내추럴리즘이 새롭게 부상하였으며, 여러 시대·여러 민족의 의상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여유 있고 풍성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그림 2 참조).

한편, 이 시기 한국 하이패션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는 한국적인 오리엔탈리즘의 지속적인 등장을 들 수 있다. 1995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진태옥은 십장생을 수놓은 천으로 가슴을 가리도록 하거나 당의와 같은 느낌을 주는 상의를 발표하였고, 1996년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설운형이 여러가지 원색의 조각천을 이어 만든 조각보를 이용한 상의와 원피스, 배낭 등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모든 시즌의 컬렉션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디테일과 모티프를 사용한 작품들이 각 시즌의 세계적인 스타일과 어우러져 등장하였다.

### 3. 매스 패션

1990년대 후반은 198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 내셔널 브랜드 업체들이 IMF 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11) "96 S/S SFAA Seoul Collection", 「Elle 한국판」, 1996년 1월.

12) "97 Spring & Summer trends", 「Elle 한국판」, 1997년 1월.

13) "SFAA '98 Spring/Summer Collection", 「한국판 Bazaar」, 1998년 1월.

14) "98 F/W SFAA Seoul Collection", 「Elle 한국판」, 1998년 6월.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의 성장과 후퇴를 경험한, 한국 매스패션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영캐주얼의 부상과 동대문 패션의 성공이다. 즉,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던 기성세대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과는 무관하게 10대 청소년들은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였고, 이들을 타겟으로 한 내셔널 브랜드들이 급증하며 그 규모가 확대되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일본의 매스패션 소비자들과 유사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캐주얼 시장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한 '오조크'와 '나이스 크랍'이 일본의 내셔널 브랜드로서, 일본의 도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만을 매장에 전시하는 일본 본점의 상품들 그대로 한국에 들여와 판매율 9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으며,<sup>15)</sup> 이후 등장한 많은 브랜드의 상품들이 이들과 대동소이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또한 의류업체들의 잇따른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디자이너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생산해 냄에 따라 이전의 '값싼 시장 의복'에서 '감각있고 개성있는 의복'으로 변화된 '동대문 패션'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유행한 스타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995년에는 북고풍의 글래머룩 중에서도 허리가 짧은 재킷과 팬츠로 구성된 팬츠수트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sup>16)</sup> 하반기에는 여기에 모즈룩이 가세하여 매니쉬한 모드가 유행하였다.<sup>17)</sup> 1996년에는 하이패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니멀리즘이 다시 부활하여 타이니 탑과 힙허저 스타일의 팬츠와 스커트,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와 짧은 팬츠, 사브리나 팬츠 등이 많은 인기를 얻었다.<sup>18)</sup> 그러나 각 의류업체에서 유럽과 한국의 컬렉션 내용을 토대로 제시한 재키 스타일의 원피스와 구찌, 프라다풍의 스틱

수트는 별 다른 관심을 얻지 못하였고,<sup>19)</sup> 오히려 봄부터 시작된 스트리트의 공주패션 열풍이 전국을 휩쓸며 「아나카프리」, 「텔레그라프」, 「오트제」 같은 공주풍의 예복 판매업체들이 뜻하지 않은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sup>20)</sup> 「닉스」에서 시작된 '롱다리바지'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인기를 얻으며 비슷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까지 유행되기도 하였다.<sup>21)</sup> 1997년에는 이전 해의 스트리트에서 유행하던 공주패션을 처음부터 하나의 트렌드로 설정하였고, 여러 시즌동안 스트리트에서 유행하던 빈티지룩이 매스패션에 등장한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었다.<sup>22)</sup> 한편, 봄 시즌에 파랑색 계열에 치중하였던 매스패션이 소비자들의 반응에 의해 검은색으로 바뀌는가 하면, 가을 시즌에 제시한 미니멀한 의복이 인기를 얻지



〈그림 3〉 캐주얼 쉬크의 스포티브룩  
('98 S/S, Korea-mass fashion,  
「세시」, 1998년 4월)

15) "OZOC 히트-판매율 90%", 「섬유저널」, 1997년 11월.

16) "북고풍 글래머룩 인기 모았다", 「한국섬유신문」, 1995년 5월 25일.

17) "올 가을 여성복 판매동향", 「한국섬유신문」, 1995년 10월 2일.

18) "올 여름에도 배꼽티 유행한다.", 「조선일보」, 1996년 4월 15일.

19) "되짚어보는 96패션계 이모저모", 「문화일보」, 1996년 12월 28일.

20) "우아한 공주패션 바람", 「한겨레신문」, 1996년 7월 29일.

21) "청바지 닉스 돌풍", 「조선일보」, 1996년 9월 14일.

22) "낡은 듯 은근한 멋 '빈티지 룩'", 「문화일보」, 1997년 1월 4일.



〈그림 4〉 회색의 벌룬스커트  
('98 F/W, Korea-mass fashion,  
「세시」, 1998년 9월)

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장식적 스타일들이 유행하게 되기도 하였다. 1998년에는 스포츠웨어와 정장을 혼합한 캐주얼 쉬크 스타일이 등장하여<sup>23)</sup> 후드 스타일과 드로우스트링 스타일, 지퍼 부착 스타일 등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sup>24)</sup>(그림 3 참조), 가을·겨울 시즌에는 벌룬스커트·비대칭 스커트와 같이 일본의 스트리트적 요소와 전위적인 실험정신이 반영된 무채색의 소프트 아방가르드룩(그림 4 참조), 몇 년 동안 스트리트를 휩쓴 스노보드룩이 매스패션에 등장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스포티브룩과 함께 몇 해전의 공주패션이 다시 유행하였는데, 봄 시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타일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흰색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세기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가을에는 꽃과 자수의 에스닉룩과 미니멀리즘이 공존하였고,<sup>25)</sup> 애니멀룩과 스포티브룩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림 5〉 빈티지룩(춘티패션)  
('96 F/W, Korea-street fashion,  
「휘가로」, 1996년 11월)

#### 4. 스트리트 패션

1990년대 한국의 패션현상을 가장 크게 특징지은 요소 중의 하나가 스트리트패션의 부상과 이에 따른 영향력의 과급일 정도로 이 시기의 스트리트패션은 현대 한국 패션의 한 부분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전보다 훨씬 대담하고 자유로운 경향을 보인 1995년의 스트리트패션에서는 몸에 꼭 맞는 상의와 와이드 팬츠를 매치시키는 힙합스타일이 봄 시즌에 등장하자마자 스트리트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타일이 되었다.<sup>26)</sup> 또한 믹스매치룩도 한 해 동안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청바지를 군데군데 찢거나 긴 바지를 잘라 율을 풀고 다니는 그런지 스타일도 이들을 단정하거나 여성스러운 아이템과 매치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지가 아닌 새로운 느낌의 믹스매치룩이었다. 가을 시즌에 가장 유행한 스타일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무대 의상으로 입고 나와 순식간에 유행

23) “스포츠웨어-정장 벽 무너진다”, 「문화일보」, 1998년 3월 2일.

24) “끈 패션이 뜬다”, 「한국일보」, 1998년 6월 18일.

25) “봄옷, 퍼스텔톤·미니멀리즘 손짓”, 「동아일보」, 1999년 2월 12일.

26) “95 핫템머 유행 스트리트 패션분석(상)”, 「한국섬유신문」, 1995년 8월 31일.

27) “95년 겨울 패션 스트리트 트렌드”, 「어패럴 뉴스」, 1996년 2월 5일.

행하게 된 스노보드룩으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sup>27)</sup> 1996년 봄 시즌에 돌보인 공주패션은<sup>28)</sup> 봄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심플하고 미니멀한 재키 스타일이 유행하리라 예상되었던 봄·여름 시즌을 리본과 망사, 부풀린 스커트의 로맨티시즘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을 시즌에는 일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빈티지룩이 실제 현 옷을 구매 입는 구제패션과 몇 십년 전의 스타일을 이용하여 촌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촌티패션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유행하였고(그림 5 참조), 특징적인 아이템으로는 바닥에 끌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끝단에 압편을 꽂아 신발에 고정시킨 와이드 팬츠를<sup>29)</sup> 들 수 있으며, 외국의 헌옷을 수입하여 입는 빈티지룩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즌의 한 특징이다.<sup>30)</sup> 1997년에는 촌티패션의 유행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힙합스타일이 더 혈령해져 허리 사이즈가 34~38인치



〈그림 6〉 힙합룩  
(97 S/S, Korea-street fashion,  
「세시」, 1997년 6월)

나 되는 팬츠를 속옷이 보이도록 입고 그 위에 XXL 사이즈의 티셔츠를 입는 것이 보통이었으며,<sup>31)</sup> 패스 패션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한 것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바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998년에는 레이스와 프릴로 장식된 공주패션과 일본풍의 아방가르드룩이 유행하였으며, 대학생들에게는 상의를 2개 겹쳐 입고 하의는 카고팬츠를 입고, 닥터 K라 불리는 황색 워커에 G-shock 시계를 착용하는 '이지룩'이 교복으로 여겨질 만큼 많이 입혀졌다<sup>32)</sup>(그림 6 참조). 또한 상의를 꼭 맞게 입고 하의는 혈령한 스노보드팬츠를 착용하는 힙합풍의 스노보드룩이 새롭게 등장하여 인기를 얻었다. 마지막 해인 1999년에는 망사와 프릴, 리플 등으로 장식된 공주패션이 계속하여 유행하는 가운데<sup>33)</sup> 다민족 스타일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스웨글과 프린지, 꽃무늬 자수와 물고기 프린트가 대부분의 의복에 장식되면서 '괴이 하피룩'이라는 용어로 많이 불리웠지만,<sup>34)</sup> 정확하게는 다민족 스타일이라고 해야 옳을 만큼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동양은 물론, 북아메리카 인디언과 집시, 남아메리카와 유럽 여러 나라의 전통패션 요소들을 도입하여 혼합한 것이었다. 한편, 1999년 2월에 동대문의 '두산타워'가 문을 열면서 기존의 '밀리오래', '저평프레야'로 대표되던 '동대문 시장패션'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는 실무에서 오랜 경험을 쌓거나 해외유학에서 돌아온 디자이너들이 이 곳으로 모여들어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과 품질이 예전의 재래시장과는 달리 백화점이나 내셔널 브랜드의 옷에 비해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sup>35)</sup> 또한 기업이 할 수 없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기획에서 생산까지 하루 이틀 밖에 걸리지 않아 소비자의 반응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옷을 사기 위해 이 곳에 찾아 온 여학생들의 옷차림은 디

28) "동화속 주인공처럼, 공주치마 인기", 「동아일보」, 1996년 4월 27일.

29) "힙합의 토착화 압정패션", 「한국일보」, 1996년 8월 15일.

30) "헌옷이 더 된다/중고 패션족 활보", 「경향신문」, 1996년 5월 13일.

31) "힙합패션", 「동아일보」, 1997년 2월 3일.

32) "10대 '이지룩' 열풍", 「동아일보」, 1998년 8월 6일.

33) "20대 겨냥 '공주풍-미니멀' 어깨동무", 「동아일보」, 1999년 5월 28일.

34) "히피", 「휘가로」, 1999년 5월호.

35) "신세대 디자이너 시장서 승부전다", 「한겨레신문」, 1999년 6월 8일.



자이너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것은 다시 디자인들에게 의해 상품으로 만들어져 그들에게 착용되며 스트리트패션을 형성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였다. 특히 1999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과 직접적인 해외 진출로 우리나라의 스트리트패션뿐 아닌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패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옷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동대문 상가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다.<sup>3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의 한국 패션현상은 전체적으로는 로맨티시즘과 미니멀리즘이 혼합된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패션그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스타일에 있어서는 하이패션에서 글래머룩과 에스닉룩이, 매스패션에서 글래머룩과 스포티브룩이, 스트리트패션에서 힙합룩과 빈티지룩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아이템에 있어서는 하이패션에서 테일러드 수트와 스틱수트, 비대칭드레스,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부정형(無定形) 의복이, 매스패션에서 테일러드 수트, 타이니 탑과 헐허거의 슬림 팬츠, 슬림 드레스, 후드·지퍼·드로우스트링을 이용한 아이템이, 스트리트패션에서 타이니 탑과 헐허거 힙합 팬츠, 공주 치마, 그런지 진, 빈티지 진 등이 인기를 얻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색상에서는 세 패션그룹 모두 회색을 비롯한 무채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스트리트패션에서는 1995, 1996, 1997년 3년 동안 검은색이 유행하였다. 소재에 있어서도 모든 패션 집단에서 비치는 소재와 광택 소재, 신축성 소재가 공통으로 사용되었으나, 하이패션에서는 비치는 소재끼리의 레이어링이, 매스패션에서는 신축성 소재와 함께 천연섬유가, 스트리트패션에서는 데님, 손뜨개 니트, 패딩, 나일론, 망사 등이 주로 이용된 것이 다른 두 집단과 달랐다.

## IV. 일본의 패션 그룹별 패션 현상

### 1. 사회적 배경

36) “동대문, 일본·대만 보따리상들 북적”, 『한국섬유신문』, 1999년 4월 17일.

37) “피해액 최대 114조원 전망/일 지진”, 『동아일보』, 1995년 1월 19일.

38) “일 경제 올 마이너스 성장”, 『동아일보』, 1998년 9월 3일.

39) 김지룡,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서울:명진출판, 1998, pp. 67-103.

40) “일 여성들 서울방문 러시”, 『대한매일』, 1999년 4년 10일.

1990년대 후반의 일본은 1995년에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재난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쿄 대지진을 시작으로,<sup>37)</sup> 여러 차례에 걸친 개각과 개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겪음은 물론, IMF가 일본의 경제불안을 아시아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sup>38)</sup> 문화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문화 현상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비평력까지를 지니는 ‘오타쿠’(otaku), 기존 문화에 맞서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의 하위문화인 ‘인디즈’(indies),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의 새로운 창조자 겸 소비자로 떠오른 ‘고가르’들에 의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39)</sup>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스포츠, 음악, 패션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선동렬 선수가 일본의 프로야구단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조성민, 이종범 등의 활약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강수지, 핑클, SES 등의 연예인 역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국의 밀리오레, 거평프레야, 두산타워가 문을 연 이후에는 동대문 패션시장에서 옷을 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성들의 수가 날이 증가하였고, 일본의 패션 스트리트에서 의류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도 옷을 사기 위해 한국을 정기적으로 드나들게 된 것이다.<sup>40)</sup>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하에서 1990년대 후반의 일본 패션현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하이패션과 매스패션, 스트리트패션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하이패션

1990년대 후반의 도쿄 컬렉션은 유럽이나 미국의 컬렉션에서와 마찬가지로 글래머룩, 롤리타룩이 주를 이룬 로맨티시즘이 지배적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전통패션을 이용한 오리엔탈룩과 도쿄 스트리트에서 유행하는 귀엽고 전위적인 스타일이 많



〈그림 7〉 톨리타룩  
(’95 S/S, Japan-high fashion,  
「Gap」, ’95 S/S)



〈그림 8〉 소프트 아방가르드룩  
(’99 S/S, Japan-high fashion,  
「Tokyo Fashion」, ’99 S/S)

았다. 연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1995년에는 기모노의 평면구성을 응용한 무정형(無定形) 의복과 세계적 트렌드인 톨리타룩을 전위적으로 표현한 의복들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그림 7 참조), 1996년에는 유럽과 미국의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가늘고 긴 라인의 미니멀한 의복이 대부분이었다. 1996년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밀리터리룩의 영향으로 나타난 벨티드 코트와 스틱슈트, 미니스커트가 있으며 이들 모두에 지퍼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었다. 1997년에는 아시아와 중남미 의상들을 응용한 에스닉룩이 두드러져 나타났으며, 롱스커트의 도련부분을 오므리거나 넓은 천을 몸에 감고 허리 부분에서 고정시키는 등 부드러운 직물을 사용하여 감거나 두르거나 부풀려 만든 소프트 아방가르드룩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스타일은 1998년에 더욱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이전 해보다 훨씬 여유 있어지고 드레이프를 이용한 새로운 조형을 시도가 작

이 많았다.<sup>41)</sup> 1999년에는 유럽과 미국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에스닉룩의 확대가 가장 큰 특징이었으며 모티브 역시 그것의 지역과 시기에 있어 보다 광범위해졌다.<sup>42)</sup> 〈그림 8〉은 도쿄 컬렉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무정형 의복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유럽에서 활동중인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되어 1990년대 후반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소프트 아방가르드룩의 한 예이다.

### 3. 매스패션

같은 시기의 일본 매스 패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이 도쿄 스트리트 스타일에 영향을 상당부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에 나타난 청소년 취향의 브랜드「오조크」의 성공은 스트리트패션을 매스패션에 도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다.<sup>43)</sup> 또한 이 해에 매스패션에서 인기를 얻은 엠파이어 라인과 레이

41) 「Tokyo Fashion」, 1998년 F/W 시즌

42) 「Tokyo Fashion」, 1999년 F/W 시즌

43) “일본 「OZOC」브랜드 성공사례로 본 신세대 흡수전략”, 「한국섬유신문」, 1995년 5월 22일.

44) “서머드레스 빅히트-일 유통가”, 「어패럴 뉴스」, 1995년 4월3일.



〈그림 9〉 1970년대풍 원피스들  
(’96 F/W, Japan-mass fashion,  
‘So-en’, 1996년 10월)

어드 스타일도 도쿄의 스트리트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었다.<sup>45)</sup> 1996년에 일본의 의류업체가 내세운 대표적인 스타일은 1970년대 스타일을 모던한 분위기로 재현한 클린 세븐티즈(clean seventies)였으며 이 때 주로 생산한 아이템은 원피스와 작은 티셔츠였다(그림 9 참조). 그러나 실제로 가장 많이 판매된 아이템은 일본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팬츠였는데, 이는 봄부터 스트리트에 다양한 종류의 팬츠가 등장하여 유행한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sup>46)</sup> 1997년에는 다른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등장한 중국풍의 에스닉룩이 일본 패션에서도 인기를 얻은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페이스와 자수, 드레이프, 쉬폰 등을 이용한 여성스러운 스타일들이 강조되었다.<sup>46)</sup> 1998년에는 이러한 로맨틱한 경향에 스포티브룩이 첨가되면서 실용적인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고, 그 중에서도 후드가 달리고 지퍼 여밈을 한 아이템

45) “SS도쿄 컬렉션/60년대풍 질게 내포”, 『텍스헤럴드』, 1996년 11월 11일.

46) “일본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한국섬유신문』, 1997년 4월 24일.



〈그림 10〉 후드 달린 블루종과 플리츠 스커트  
(’98 F/W, Japan-mass fashion,  
‘Non-no’, 1998년 11월 20일)

들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림 10〉은 후드 달린 블루종을 플리츠 스커트와 함께 착용하여 스포티브룩을 여성적으로 연출한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또한 유럽 컬렉션에 공통으로 등장한 하이백 스웨터와 함께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되어 세계적인 유행이 된 소프트 아방가르드룩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마지막 해인 1999년에는 실용적인 스포티브룩과 함께 편안하고 흐르는 듯한 내추럴리즘이 많이 등장하여 셔츠 블라우스와 힐링한 원피스, 샤 스커트 등이 인기를 얻었고, 점차 인도와 일본, 남미 전통의상의 영향을 받은 에스닉룩이 그 인기를 대신하게 되었다.

#### 4. 스트리트패션

1990년대 후반의 도쿄 스트리트에서 주로 유행한 스타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힙합룩과 그랜지룩, 스노보드룩, 밀리터리룩 등과 같이 남성적이면서도 스포티브한 스타일이다. 다음은 1990년대 전반부터 인기를 얻어 이 시기에 절정에 이른 가수 아무로 나미에의 여성스럽고 세시한 스타일이며, 세 번째는 역시 가수이지만 귀여우면서도

강한 개성이 돋보이는 시노하라 도모에의 스타일이고, 마지막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지역에 등장하였던 에스닉룩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도쿄 스트리트 패션 특유의 귀여우면서도 전위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이 고루 반영되어 형성된 스타일들이라 할 수 있다. 해마다의 유행경향을 살펴보면, 1995년에는 작은 상의에 질질 끌리는 커다란 하의를 매치시켜 입는 힙합룩이 대표적인 스타일이었으며,<sup>47)</sup> 스노보드룩과 빈티지룩이 새롭게 등장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었다. 브라운의 긴 생머리, 가늘게 그린 눈썹, 까무잡잡한 피부, 탱크 탑이나 지퍼 부착 가죽 재킷과 짧은 팬츠나 미니 스커트, 롱 부츠를 착용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 아무로 스타일도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러한 아무로 나미에의 스타일은 각 시즌마다 특징을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1990년대 후반의 일본 스트리트패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6년에는 봄이 되면서부터 등장한 다양한 종류의 팬츠들이 인기를 누렸으며 가을부터는 길다란 셔츠에 스노팬츠를 입고 거꾸로 쓴 모자에 검은 테의 선글라스를 걸치는 스노보드룩과 오래된 스타일의 빈티지룩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런데 이 때 스트리트에 등장한 빈티지룩은 같은 시즌의 매스패션에 나타난 빈티지룩과는 차이가 있어, 매스패션의 빈티지룩이 인디고 블루의 청바지를 착용함으로써 과거의 스타일을 재현한 반면, 스트리트패션의 빈티지룩은 구제품 내지는 촌스러워보이는 뜨개 제품을 사용하여 과거의 스타일을 재현하였다. 1997년에는 미니스커트에 루즈 삭스와 운동화를 착용하는 스쿨걸룩, 홍콩 반환의 영향으로 나타난 에스닉룩, 외국으로부터 구제품을 수입하여 입는 구제패션과 촌스러운 스타일의 손뜨개 제품을 입는 촌티패션으로 양분된 빈티지룩, 그리고 또 다른 연예인 시노하라 도모에의 베짚마루 즉, 귀여운 악마 스타일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 중 삐죽삐죽 아무렇게나 뿔어 나온 헤어스타일, 푸른 색의 입술화장, 자기 다리보다 더 굵고 높은 구두, 양쪽 손목에 검은 형형색색의 유리구슬 팔찌, 온갖 종류의 헬로우 키티 장신구, 몸에 달라붙는 각



〈그림 11〉 시노하라 도모에 스타일  
(’97 S/S, Japan-street fashion,  
「일본대중문화 베끼기」, p.229)

기 다른 원색 의복들을 한꺼번에 착용하는 시노하라 도모에의 스타일은 이 시기의 촌티패션과 키티 장신구 유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sup>48)</sup>(그림 11 참조). 그리



〈그림 12〉 에스닉룩  
(’99 F/W, Japan-street fashion,  
「Street 패션 정점 관측」, 1999년 10월)

47) “일-거리패션의 유행”, 「어패럴 뉴스」, 1995년 5월 29.

48) 정회경, “패션 길라잡이 일본과 일본의 패션 따라잡기”, 이 연 외, 「일본 대중 문화 베끼기」, 서울: 나무와 숲, 1998, pp. 230-231.

고 다음 해인 1998년에는 기존의 스쿨걸룩에 핑크적인 요소를 가미한 스쿨핑크 스타일을 유행시키기도 하였다. 1998년에 유행한 다른 스타일로는 소프트 아방가르드룩을 들 수 있는데, 스커트 밑단에 레이 스킨 많이 달아 하이패션이나 매스패션에서와는 다

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1999년에는 서 퍼스타일이 새롭게 등장하며 스포티브 캐주얼의 인기가 더욱 심화되는 한편, 여러 나라의 민속풍을 도입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혼합시킨 다민족적 에스닉 룩이 가장 크게 유행하였다.<sup>49)</sup> <그림 12>는 1999년

<표 1> 한국과 일본의 패션그룹간 현상 비교

	하이패션		매스패션		스트리트패션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95 S/S	글래머룩 롤리타룩 오리엔탈룩	글래머룩 롤리타룩 도쿄스트리트룩	글래머룩 롤리타룩 스쿨걸룩	글래머룩 레이어드룩	힙합룩 믹스매치룩 스쿨걸룩	힙합룩 그런지룩 아무로스타일
1995 F/W	글래머룩 오리엔탈룩	도쿄스트리트룩 글래머룩 스포츠룩	글래머룩 모즈룩	글래머룩 모즈룩	스노보드룩 힙합룩 밀리터리룩	스노보드룩 모즈룩 빈티지룩
1996 S/S	글래머룩 모즈룩	스포츠룩 빅룩	모즈룩 로맨틱룩	모즈룩 빈티지룩	모즈룩 힙합룩 로맨틱룩	모즈룩 아무로스타일 스포츠룩
1996 F/W	밀리터리룩 사이버룩 모즈룩	밀리터리룩 스포츠룩 에스닉룩	밀리터리룩 사이버룩 한국스트리트룩	밀리터리룩 에스닉룩 빈티지룩	빈티지룩 힙합룩 스노보드룩 밀리터리룩	스노보드룩 밀리터리룩 에스닉룩 빈티지룩
1997 S/S	밀리터리룩 비대칭룩 에스닉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로맨틱룩 에비타룩 빈티지룩	에스닉룩 바이어스룩	힙합룩 그런지룩 빈티지룩 밀리터리룩	에스닉룩 빈티지룩 시노하라 스타일
1997 F/W	에스닉룩 비대칭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젠더리스룩	에스닉룩 젠더리스룩 레이어드룩	힙합룩 빈티지룩 스포츠룩	에스닉룩 젠더리스룩 빈티지룩 스쿨핑크룩
1998 S/S	에스닉룩 젠더리스룩 브리타쉬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비대칭룩	캐주얼쉬크 스쿨걸룩 젠더리스룩	캐주얼쉬크 아방가르드룩	이지룩 스쿨걸룩 아방가르드룩	아방가르드룩 스노보드룩 에스닉룩 빈티지룩
1998 F/W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스노보드룩 젠더리스룩	아방가르드룩 스포츠룩	아방가르드룩 힙합풍의 스노보드룩	서퍼룩 빈티지룩 에스닉룩
1999 S/S	아방가르드룩 스포츠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스포츠룩 로맨틱룩	캐주얼쉬크 로맨틱룩	로맨틱룩 에스닉룩 빈티지룩	에스닉룩 큐티룩 스포츠룩
1999 F/W	에스닉룩 밀리터리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스포츠룩	에스닉룩 스포츠룩	에스닉룩 스포츠룩	에스닉룩 웨스턴룩

49) 『Street 패션 정점 관측』, 1999년 10월.

에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인도 사라사 지방 스타일의 스커트에 보헤미안풍의 만다나를 함께 착용한 에스닉룩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의 일본 패션현상은 로맨티시즘과 미니멀리즘의 혼합이라는 커다란 트렌드 안에서 각 패션그룹별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이패션에서는 물리타룩, 스포티브룩, 밀리터리룩, 에스닉룩 등이 전위적이고 스트리트적인 분위기로 표현되는 한편, 매스패션에서는 글래머룩과 모즈룩, 젠더리스룩, 스포티브룩과 함께 에스닉룩이 유행하였고, 스트리트패션에서는 힙합룩과 그랜지룩, 빈티지룩, 에스닉룩이 아무로 나미에나 시노하라 도모에 같은 연예인 스타일과 함께 많은 인기를 얻었다. 아이템에 있어서도 하이패션에서는 테일러드 수트와 미니스커트, 평면구성 의복이, 매스패션에서는 니트 트윈세트와 겹입 아이템이, 그리고 스트리트패션에서는 커다란 상의와 헐렁한 바지, 손뜨개 스웨터, 에스닉 스커트가 유행하였다. 색상은 하이패션에서는 검은색과 흰색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이, 매스패션에서는 회색과 흰색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과 파스텔색이, 스트리트패션에서는 검은색이 압도적으로 회색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소재는 비치는 소재, 광택소재, 신축성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된 가운데 매스패션과 스트리트패션에는 손뜨개와 인조 가죽, 데님 등이 많이 사용되는 등, 전체적인 트렌드 안에서 각각의 내용이 패션 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패션그룹별 패션현상이 나라별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하이패션의 경우에는 자국의 스타일에 바탕을 둔 오리엔탈리즘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국의 매스패션에 대한 영향력은 미흡하였고, 매스패션은 파리를 비롯한 유럽 컬렉션의 영향을 받아 상품을 기획하나, 영캐주얼과 스트리트패션이 부상하고 있는 1990년대 후반에는 다음 시즌을 위한 예측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획력의 부족은 스트리트패션의 반영으로 만회하고 있었다. 또한 스트리트패션은 자기주장의 산물이자 연예인에 대한 모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양국 모두 한국 동대문 패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과 일본의 패션그룹간 현상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문화의 개념을 취향문화로 보는 H. Gans의 취향문화론을 현대 패션현상에 적용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과 일본에 나타난 패션현상을 하이패션·매스패션·스트리트패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하이패션은 각 시즌의 세계적인 트렌드와 일치하는 스타일에 한국 전통패션의 요소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유동적인 방법의 오리엔탈리즘이 대표적이었으며, 아이템에 있어서는 정장 스타일이 압도적이었다.

2) 일본의 하이패션은 서양 패션에 일본 전통패션의 외형적 요소를 첨가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일본 전통패션의 조형특성과 구성방법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오리엔탈리즘이 대표적이었고, 다양한 스타일을 도쿄 스트리트의 전위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었다.

3) 한국의 매스패션은 주로 유럽과 미국의 하이패션, 특히 정장을 기준으로 상품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소비자의 취향에 부합한 것은 아니었으며, 때문에 시즌 초기에 등장한 상품 경과와 그 이후에 유행하게 된 상품 경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스트리트패션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영캐주얼의 부상, 특히 일본 영캐주얼 브랜드들의 성공은 한국과 일본의 매스패션, 스트리트패션 수용자들의 취향이 유사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일본의 매스패션은 전반적으로 파리를 비롯한 유럽의 캐주얼을 선호하며 이들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막상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스트리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 새롭게 등장하는 일이 자주 반복되었다.

5) 한국의 스트리트패션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내세울 줄 아는 청소년들에 의해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상당한 구매력을 구비하고 있어, 매스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트리트패션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또 다른 스트리트패션의 표현도구가 되는 동대문 패션은

아들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좋은 예라 하겠다.

6)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강력한 개성추구와 자기주장의 산물이자, 인기 연예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의 결과이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한국 동대문 패션을 매개로 하는 한국 스트리트패션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현대 패션은 상급문화·중급문화·하급문화로 구분되는 H. Gans의 취향문화로 설명될 수 있고, 이는 패션현상에 있어 하이패션·메스패션·스트리트패션으로 구분되어 각 패션그룹별로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 패션그룹별 특징이 두 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메스패션과 스트리트패션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주고받는 영향력은 반드시 같은 집단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스트리트패션이 일본의 스트리트패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일본의 스트리트패션이 한국의 메스패션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문화의 패션현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패션 현상을 각각의 패션 그룹으로 세분하여 살펴본 본 연구는 착용자의 취향에 따른 패션 현상의 구분을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동안 학문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던 일본 패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이를 통해 일본 패션과의 잦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패션 산업이 나아갈 바를 각 패션그룹별로 모색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김민자 (1998). "20세기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 복식, Vol. 38.  
 김서연, 박길순 (1999). "한국 현대복식에 나타난 일본

패션의 영향 - 여대생을 중심으로 (1998년) -", 복식 문화연구, 7(1).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김지룡 (1998).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서울: 명진출판.  
 정희경 (1998). "패션 길라잡이 일본과 일본의 패션 따라잡기", 이 연 외, 『일본 대중 문화배끼기』, 서울: 나무와 숲.  
 Simmel, G. (1904). "Fashion", *International Quarterly*, October.  
 Blumer, H. G. (1978). "Fash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5.  
 Gans, H. (1974).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N.Y: Basic Books Inc.,  
 Finkelstein, J. (1996). 『After a Fashion』, Melbourne Univirsty Press.  
 『Elle 한국판』, 1995년 1월, 1996년 1월, 1997년 1월, 1998년 6월, 1999년 6월.  
 『한국판 Bazaar』, 1998년 1월.  
 『섬유저널』, 1997년 11월.  
 『세시』, 1997년 6월, 1998년 4월, 1998년 9월.  
 『취가로』, 1996년 11월, 1999년 5월.  
 『경향신문』, 1996년 5월 13일.  
 『문화일보』, 1996년 12월 28일, 1997년 1월 4일, 1998년 3월 2일.  
 『한국섬유신문』, 1995년 5월 22일, 1995년 5월 25일, 1995년 10월 2일, 1995년 8월 31일, 1997년 4월 24일, 1999년 4월 17일.  
 『한국일보』, 1998년 6월 18일, 1996년 8월 15일.  
 『대한매일』, 1999년 4년 10일.  
 『동아일보』, 1995년 1월 19일, 1996년 4월 27일, 1997년 2월 3일, 1998년 8월 6일 1998년 9월 3일, 1999년 2월 12일, 1999년 5월 28일.  
 『어퍼럴 뉴스』, 1995년 4월3일, 1995년 5월 29일, 1996년 2월 5일.  
 『조선일보』, 1996년 4월 15일, 1996년 9월 14일.  
 『텍스헤럴드』, 1996년 11월 11일.  
 『한겨레신문』, 1996년 7월 29일, 1999년 6월 8일.  
 『Gsp』, 1995년 S/S.  
 『Non-no』, 1998년 11월 20일.  
 『So-en』, 1996년 10월.  
 『Tokyo Fashion』, 1998년 F/W, 1999년 S/S, 1999년 F/W  
 『Street 패션 정점 관측』, 1999년 10월.